



전시작 '호기심의 캐비닛'(드로잉아키텍처스튜디오) 사진제공 | 현대모터스튜디오

### 현대차 '미래가 그림나요?' 전시회 개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서 내년 3월 31일까지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1' 수상자 심소미 큐레이터의 전시 '미래가 그림나요?'전이 내년 3월 31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된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은 현대자동차가 우수한 국내 디자인 큐레이터를 발굴해 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워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수상자인 심소미 큐레이터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2021'의 주제 '시간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해,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시간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이 우리 삶에 밀접한 디자인 가치를 조명하며, '인류를 향한 진보'라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을 대중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롯데건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MOU 공동주택 하자보수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롯데건설 C/S부문 황규석 상무(왼쪽)와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사진제공 | 롯데건설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이 입주 관리 하자보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건설은 "롯데건설 C/S부문 황규석 상무와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이 8일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경기도 숙련 건설 기능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내년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한다.

롯데건설은 교육생에게 현장실습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풀과 실습시설을 지원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자보수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ESG 경영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 메디힐 '2021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 참여



엘엔피코스메틱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1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파에서 열리는 '2021 CJ올리브영 어워즈 & 페스타'에 참여한다. '티트리 케어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REX'(사진)가 마스크팩 부문 1위에 올라 오프라인 부스로 참여한다. 이 제품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CJ올리브영 어워즈 마스크팩 부문 1위를 거머쥐며 명실공히 CJ올리브영 대표 마스크팩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메디힐 부스는 스킨케어존인 보태니컬가든에서 만날 수 있으며 주요 콘셉트는 '힐링'이다. 이달 중순 공개할 앞둔 리뉴얼 제품을 깜짝 선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와 풍성한 증정 혜택도 마련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삼성전자, 임원인사도 '세대교체'

# 30대 상무·40대 부사장... '젊은 리더' 돌풍

직급·연차 상관없이 능력 중심 발탁  
수평적 조직문화 위해 직급 단순화  
여성·외국인 임원인사 규모 늘려  
성장가능한 부사장은 CEO 후보로



삼성전자가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대거 발탁하는 큰 폭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곽봉준 부사장(49세), 홍유진 부사장(49세), 김경륜 상무(38세), 소재민 상무(38세).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 이은 삼성전자 임원 인사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다.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과 함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큰 폭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대거 발탁하고, 외국인과 여성에 대한 승진도 확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을 본격화하기 앞서 '젊은 경영진' 육성을 위한 행보다.

#### ●부사장과 상무 등 198명 규모

삼성전자는 9일 2022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부사장 68명과 상무 11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98명이다. 지난해 214명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해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를 배출한 점이 눈에 띈다. 글로벌 공급 이슈와 코로나19 영향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제품·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관

리 역량을 활용해 역대 매출 기록을 경신한 성과를 반영했다는 것이 삼성전자는 설명이다.

먼저 부사장 승진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전무와 부사장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능력 중심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젊고 우수한 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인사부터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통합해 부사장 이하 직급 체계를 '부사장-상무' 2단계로 단순화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08년 상무보를 폐지한 뒤 '부사장-전무-상무'의 임원 직위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인사에선 이 같은 변화에 맞춰 40대 젊은 부사장이 다수 배출됐다. 세트 부문에선 곽봉준(49) VD(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서비스 소프트웨어 랩장, 김찬우(45) 삼성리서치 스피크 프로세싱 랩장, 박찬우(48) 생활가전사업부 IoT 비즈니스그룹장, 이영수(49) 글로벌기술센터 자동화기술팀장, 홍유진(49) 무선사업부 UX팀장이 40대 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DS(디바이스 솔루션)부문에선 손영수(47)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부사장, 신승철(48) 파운드리사업부 영업팀 부사장, 박찬익(49) 미주총괄 부사장이 40대다.

삼성전자는 "향후 부사장은 나이와 연공을 떠나 주요 경영진으로 성장 가능한 임원을 중심으로 승진시키고 핵심 보직에 전진배치해 미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으로서의 경험 확대 및 경영자 자질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과 여성 승진도 확대

30대 상무도 4명이 나왔다. 세트 부문에선 소재민(38) VD사업부 선행개발그룹 상무와 심우철(39) 삼성리서치 시큐리티 1랩장, DS부문에선 김경륜(38)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팀 상무, 박성범(37) S.LSI사업부 SOC설계팀 상무다.

외국인과 여성에 대한 임원인사 규모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었다. 주드 버클리 세트부문 SEA법인(미국) 모바일 비즈장과 양혜순 세트부문 생활가전사업부 CX(고객경험)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상무 승진자도 다수 나왔다. 조직 혁신과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라는 것이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 우수 인력을 발탁했으며, CX 차별화 역량을 강화해 시장 선도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분야 주요 보직을 승진시켰다. 연구개발 부문 최고 전문가로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도 선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 KT&G, ISO 4대 주요 인증 보유로 ESG경영 강화

(에너지·환경·안전·품질경영시스템)

신탄진·광주 등 5개 공장 인증 획득  
부서별 에너지 목표 수립 등 높은 평가

KT&G(사장 백복인)의 전국 5개 공장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신규 획득했다. 이로써 KT&G는 신탄진, 영주, 광주, 김천, 천안공장에서 ISO 4대 주

요 인증(에너지·환경·안전·품질경영시스템)을 보유하게 됐다.

8일, KT&G 대전본사에서 김태섭 KT&G 생산부부장, 송지영 한국품질재단(KFQ)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이 개최됐다.

ISO 50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에너지 경영시스템 표준규격이다.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활동 등 관리체계

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KT&G는 부서별 에너지 목표 수립을 통한 실행력 제고, 주요 에너지 분석을 통한 절감 우선순위 도출 및 평가 프로세스 구축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상반기 KT&G는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기업 운영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기후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SBTi(과학기반 감축 목표) 국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김태섭 KT&G 생산부부장(오른쪽)과 송지영 KFQ 대표가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G

##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국내 톱3 건설그룹 도약

중흥,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 변수無  
"초일류 건설그룹 만드는 데 총력"  
임직원의 고용안정 등 상생 추진

중흥이 대우건설을 품에 안고 단숨에 국내 톱3 건설그룹으로 도약했다.

중흥그룹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5개월간 진행해 온 인수실무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달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하는 한편 새로운 대우건설을 만들기 위한 후속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시공 능력 순위 17위 중흥토건과 40위 중흥건설을 비롯해 30여 개에 달하는 주택·건설·토목부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우건설(5위)을 인수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뒤를 잇는 국내 3대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중흥은 8월 KDB인베스트먼트와 주식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대우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나 해외사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왼쪽)과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9일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흥그룹

업 부실 같은 변수가 나오지 않아 매각 금액은 입찰가(2조1000억 원)에서 큰 폭의 조정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그룹은 2조가 넘는 인수 자금을 재무적투자자(FI·Financial Investors) 없이 직접 조달한다. 일시적으로 단기 브릿지론 성격의 자금을 일부 차입하지만 내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사실상 외부 차입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이다.

SPA 체결식에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해외 역량이 뛰어난 대우건설 인수는 중흥그룹 '제2의 창업'과도 같다"

면서 "어떠한 외적 환경의 변화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우건설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임직원 개개인과 조직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우건설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독립 경영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급여도 업계 3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흥은 SPA 체결식 뒤 배포한 보도자료로 통해

향후 대우건설 경영과 관련해 ▲독립경영 및 임직원 고용승계보장 ▲채무비용 개선 ▲임직원 처우개선 ▲핵심가치(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의 고강도 ▲내부 승진 보장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 등 현안사항을 선별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가기로 했다.

정 회장은 "우리 대우건설이 더욱 역동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길 소망한다"며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신뢰와 협력으로 똘똘한 단결이 꾸리는 대우건설과 임직원 모두가 꿈꾸는 기업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흥그룹은 자산총액이 9조2070억 원(2021년 공정위 발표 기준)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건설 기업이다. 보수적인 자금운영으로 현금성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 탄탄한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친환경 주거 철학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푸르지오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연속 주택공급실적 1위, 누적 공급실적 1위를 달성했다. 탄탄한 맨파워와 함께 세계 수준의 토목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